

# 은행권,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4% 초과이자 캐시백'

###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 이자 90% 감면...187만명에 평균 85만원 은행별 순익 기준 배분해 분담...4000억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도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년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광주은행 등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대출금 2억원 한도·이자 감면율 90%=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 이자를 일괄 4%로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 왜곡의 정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고소득·유형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천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3천억원대' 순익 기준으로 배분... '개별 신청·추가 대출 필요 없어'=은행권은 4000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2000억~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어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도 은행별로 정책 취지에 맞는 상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며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3월까지 약 50%는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한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취합·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고객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은행, 전남 조선소 '대한조선'에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 346억원 규모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지역 조선소인 대한조선(주)에 총 2650만달러(약 346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선수금 환급보증은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체에게 선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급된 선수금 환급보증은 15만7000t급 원유 운반선 선박 건조 계약에 대한 것으로, 향후 중형조선소의 활발한 해외 수주와 원활한 계약 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조선소는 시중은행 등에서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중형조선소는 실적 성장에 건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이 어려워 계약체결 후 선박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 광주은행은 급변 발급을 계기로 중형조선소의 원활한 해외 마케팅을 통한 과감한 선박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조선업체에



서는 선박 건조 계약 시 선주사가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필수적이다"며 "이번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출입업체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해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마케팅 우수 직원 시상

### 광주마케팅 페스타 시상식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준)는 지난 20일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2023 광주마케팅 페스타(FESTA)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 마케팅 페스타(FESTA)는 농협은행 광주본부의 마케팅 우수 직원 육성 프로그램이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한 해 동안 핵심 사업 분야에서 교육 및 멘토, 프로모션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마케팅 실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베스트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 서민금융대출 부문 등에서 15명이 우수 직원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위니아 중소협력업체 특별자금 지원기간 연장

### 현황 점검·추가지원 논의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협력업체의 현황 점검과 추가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제2회

지역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광주시와 정책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총 22개 기관이 참석해 위니아 사태 관련 피해 상황, 제1회 회의 이후의 정책대응 현황 및 향후 추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0월 위니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협력업체에 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보다 많은 위니아 협력업체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자금 지원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광주·전남 아파트 매매가 동반 하락

광주와 전남의 아파트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지난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전남은 0.06% 하락했다.

전주 0.01% 상승했던 광주는 이주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전남은 전주(-0.04%) 보다 하락폭이 커졌는데, 여수시(-0.14%)는 신기·소호동, 돌산

읍 위주로, 무안군(-0.10%)은 삼향·무안을 위주로 하락 폭이 컸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으며 하락폭도 전주(-0.04%)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전국의 전셋값은 0.05% 올라 22주 연속 상승했다. 광주는 0.01% 올랐고, 전남은 -0.02%를 기록, 하락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릭**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와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